

## 에프앤가이드, 공모가 상단 초과한 7,000원... 경쟁률 1,327.98대 1 기록

▶ 공모밴드 상단 초과하며 수요예측 성료

▶ 총 공모규모 114억원... 이달 8일~9일 청약 후 12월 17일 코스닥 입성

<2020-12-07> 에프앤가이드가 투자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수요예측을 마무리했다.

금융정보 제공기업 에프앤가이드(김군호, 이철순 각자대표)가 지난 2일과 3일 양일간 국내외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예측 진행 결과 공모가격을 희망 공모가(공모밴드 5,200원~6,500원) 상단을 초과한 7,00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7일 밝혔다. 이에 따라 에프앤가이드의 총 공모금액은 114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.

이번 수요예측에는 총 1,369곳에 달하는 기관 투자자들이 참여해 1,327.9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,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 100%가 공모밴드 상단 이상으로 가격을 제시했다. 이 중 확정 공모가인 7,000원 이상 제시한 기관은 1,231곳(89.9%)에 달한다.

에프앤가이드는 이번에 조달된 공모자금 114억 원을 AI, 빅데이터 등의 신기술 적용 및 B2C 서비스에 사용할 예정이다. 인공지능(AI)과 빅데이터를 결합한 후 뉴스와 ESG(환경·사회·지배구조) 등 비정형 데이터와 대체투자 데이터(Alternative Data) 융합을 통해 신규서비스를 추진하는 등 사업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. 뿐만 아니라 마이데이터(MyData) 사업자 지위를 획득하여 20년 간 B2B시장에서 축적된 노하우와 솔루션을 B2C에 적용하여 종합금융정보업체로의 도약을 가속화할 계획이다.

에프앤가이드 김군호 대표이사는 “에프앤가이드의 사업 경쟁력과 성장성에 대해 신뢰를 보내주시고 긍정적으로 평가해주신 국내외 투자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”며 “상장 후 지속적인 성장을 바탕으로 종합금융정보 일류기업으로 도약할 것”이라고 포부를 전했다.

한편, 에프앤가이드의 일반 투자자 공모주 청약은 오는 8일~9일 양일간 진행되며, 대표 주관사인 신영증권과 인수회사인 삼성증권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. 코스닥 상장예정일은 이달 17일이다.